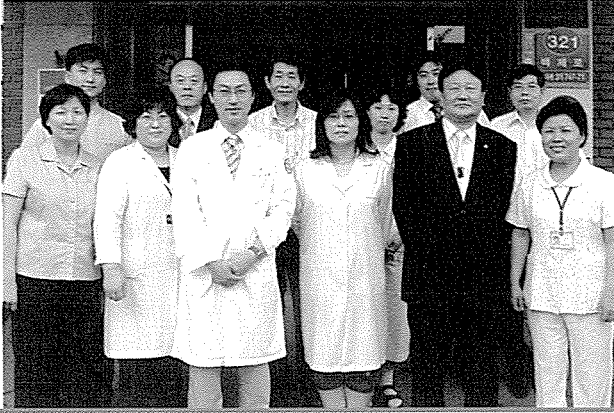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 복십자의원

글 박연숙(본지기자)

대한결핵협회 12개 시·도지부 산하에는 총 9곳의 복십자의원이 있다. 전북지부 복십자의원도 바로 그 중 하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58년 창설되었고, 1983년 부설 복십자의원이 문을 열면서 비로소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왼쪽 || 보건세계 촬영을 위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카메라 앞에 선 전북지부 직원들. 아래 || 복십자의원 김왜중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예향의 도시 전주, 지역밀착형 병원으로 거듭나

우리나라의 각 도시는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예향의 도시' 일 것이다. 판소리와 부채, 전주 비빔밥 정도가 전부인 짧은 지식을 갖고 처음 방문한 전주는 예상한 대로 조용하고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였다. KTX 개통으로 경쟁하듯 현대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해버린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 달리 기왓장 얽은 역사 건물부터가 눈에 띄었다.

전주역에서 10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 대rob변에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복십자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 지부 부설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결핵전문' 진료에 대한 인식이 강해 이곳 복십자의원에서 결핵 이외의 진료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검진이나 독감예방접종 등을 매년 실시하며 지역 주민의 보건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북지부 복십자의원은 최근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얼마 전에 간판을 새로 걸었어요. 밖에서도 이곳에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전북지부 이범수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동안 '복십자의원'이란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던 건물에 새하얀 글씨로 '내과, 결핵과, 방사선과, 종합검사'라고 진료과목을 간판을 만들어 걸면서, 복십자의원의 꿈도 함께 내걸었다.

간판 하나 더 걸었다고 저절로 사람들이 찾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만 생활권이 이 근처인데도 병원을 찾지 못해 멀리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사람들에게 병원의 존재를 알리고, 직원

들도 이를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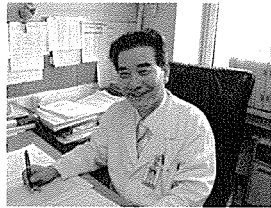
“지금은 결핵환자들이 증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결핵환자들이 호흡기와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호흡기질환을 함께 보고 있고요, 이밖에도 류마티스나 노인성 질환, 순환기 질환 등으로 진료과목을 늘리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전북지부 복십자의원 김왜중 원장이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병원이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 복십자의원은 환자를 관리해주는 병원이 되고자 한다. 처음엔 결핵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친절함에, 혹은 서비스에 반해 내 가족, 이웃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병원, 언제든 들러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편안한 병원, 바로 전북지부 복십자의원이 지향하는 미래다.(문의 : 063-243-2724~5) †

interview / 강성귀 전북지부장

“크리스마스 썰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장이며 현재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성귀 지부장은 협회 발전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취임해 보니, 결핵사업에서 크리스마스 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막상 썰이나 결핵에 대한 인식은 전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썰 본연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귀 지부장은 지난해 각 병원에 있는 제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썰의 의미를 알리는 편지를 써 많은 의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연말이면 기업이나 관공서에도 썰을 보내는데 많은 곳에서 담당자 차원에서 해결할 뿐, 실제로 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따라서 썰의 의미를 바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아직도 우리 나라가 결핵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전북지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과 등의 진료를 강화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